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폐지해야”

유성엽 의원, 기재위 국감서 “기업 내 이·퇴직으로 사람만 바뀐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 구분 안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우·고창, 민주당)은 15일 대전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폐지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면 유럽의 경우 직접고용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간접고용의 형태가 많아 국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 바 있다.

1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간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민간 일자리의 신규채용일자리 33.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중 신규일자리가 얼마인지, 대체일자리가 얼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소멸일자리에 대해서도 공표하지 않는다.

자료를 활용하면 대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구분뿐 아니라 소멸 일자리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통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계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5월 18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1분과 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개발(안)이 논의, 2017년 6월 처음으로 공표됐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OECD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적은 비율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 통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근로소득자급명세서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종합·연계하여 작성되고 있어 통

합 자료를 활용하면 대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구분뿐 아니라 소멸 일자리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통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금으로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와 경기 악화를 겪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낼 때 OECD 국가들이 각 국가마다의 상이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작년 5월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1분과 회의의 시에도 은희환 당시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SNA 기준을 보면 포괄범위는 직접고용만 해당되며, 민간위탁은 정부소속 인력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



스파이크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한창인 15일 전북 익산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배구 경기에서 남성고교 이현진 선수가 두 명의 선수를 상대로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만찬

15년 만에 전북도에서 개최하는 제99회 전국체전에 세계 17개국 1,300여명으로 구성된 ‘해외동포선수단’ 환영을 위한 도지사 초청 만찬행사가 15일 주 개최지 익산(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는 1천여명에 가까운 세계한민체육회 총연합회(회장 윤만영) 해외동포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의 전통과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영상과 남원시립극단의 국악과 전통무용으로 시작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불가능을 가능한 기쁨으로 만드는 해외동포의 노고와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한 ‘헌신’

익산시청 직원 1700여명, 뒷바라지 한창

어우러진 ‘문화체전’으로 만들고자 준비했다.

현재, 전국체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익산시는 종합상황실, 종합안내소 및 경기장 안내소,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개·폐회식 준비와 의전업무, 성화봉송 운영, 시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선수단의 영접, 언론보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통 통제 및 주차장 관리, 거리 질서유지, 의료지원, 숙박 및 위생 관리, 쓰레기 수거 등 전반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北, 제재로 큰 경제적 어려움 비핵화 어길 시 보복 감당 못 해”

문 대통령, 프랑스 보수 매체 르 피가로와 인터뷰서 “김정은, 전략적 결단 내려… 국제사회에 비핵화 약속”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핵화 협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진행된 프랑스를 대표하는 보수 매체인 르 피가로(Le Figaro)와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대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 보수지를 상대로 한 이번 서면 인터뷰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 대해 프랑스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데에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보수 진영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나는 세 차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발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은 4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

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단행했다”며 “2년 핵 협상 사(史)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하나뿐인 종거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는 등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물론, 발사대까지도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 폐기기로 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의향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9월 방북 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 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 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남북한 공동의 평화 번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계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과 관련하여서는 “김 위원장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매우 환영할 것이라는 뜻도 내게 밝혔는 바, 그의 뜻도 교황님께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美 살균소독제 생산업체, 김제자유무역지역에 둥지

김제시(주)시몬이 전북도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총 72억원을 투자해 약 300평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김제시(주)시몬은 미국 외투기업으로서 김제 자유무역지역 임대부지에 1만6,500㎡(5,000평) 규모로 총 투자액 72억원, 260명을 고용하여 살균소독제 및 의료기기소모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제시(주)시몬은 “(주)시몬 투자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은 물론 인근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내 해외투자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김제시, 그리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김제=곽도태 기자

고창군 공고 제 2018-1293 호

고창무장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고창무장 공공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8.12. ~ 2021.12.
-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예정지의 명칭(성명) 및 주소
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천리리 71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698.7㎡ - 대지면적 : 10,698.7㎡ - 연면적 : 6,724.63㎡ -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영산남도 전주시 승주로19(승주부동)

2.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민생경제과	2018.10.16. ~ 2018.10.31.(16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8. 10. 16. ~ 2018. 10. 31.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생경제과(☎063-560-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16.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총장 이호인

VISION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한영수